

통역에서의 질적사례연구 확대를 위한 제언 — 국내 통역연구 중심으로 —

원 중 화
(중앙대)

1. 서론

프랑스 철학자 콩트(Compte)가 1842년에 완성한 『실증철학강의(*Cours de Philosophie Positive*)』에서부터 유래한 ‘실증주의(positivism)’는 실험, 탐구, 조작 등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외부에 존재하는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실증주의는 특히 19세기 후반 자연과학의 비약적 성장과 맞물리면서 객관적 법칙을 지향하는 연구 담론을 지배해왔다(고미영 2009: 13; 김영천 2016: 67). 그러나 이러한 실증주의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현상을 축소해버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실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다양한 변수나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포괄하며, 직관적 통찰을 통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학문 분야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갈래로 성장해왔다(고미영 2009: 13; 김영천 2016: 14-15; Glesne 1998; McMillan & Wergin 2002; Merriam 2009).

질적 연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실험실에서의 인위적 현상보다는 실제 상황 속에서 일상적 세계들을 들여다보고 이해한 것을 기술하며, 이를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이론으로 구축하거나, 혹은 기존의 이론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갖는 데 있다(김영천 2016: 94-95).

이러한 질적 연구 중에서도 특히 사례연구¹⁾는 제한된 수의 대상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부터 탐색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분석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연구 방식이다(Yin 2009: 4). 무엇보다 사례연구의 강점은 다양한 상황적 요소들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방법이라는 점과, 정량적 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단일사례와 복합사례를 개별적으로 또는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연구 중간에라도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등의 유연한 연구 방법이라는 점(Merriam 2009; Stake 1995; Yin 2009)등에 있다. 통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통역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많은 경우 사회 속의 여러 현상이나 제도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 관계들을 반영한다는 점(예: 이지은 외 2016)에서 사례연구는 통역수행현장이나 통역교육현장 등 통역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질적연구들이 그렇듯이 사례연구 역시 연구자의 직관적 판단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연구물로서의 객관성과 유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강지혜 2013: 8; Yin 2009: 14), 특히 다른 형태의 질적연구에 비해 사례연구는 그 적용 범위가 다양하고, 다른 연구 방법과의 병합이 가능하며, 연구 절차가 유연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연구 결과물에 충분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Merriam 2009: 39; Yin 2009: 17). 따라서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례연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물로서

1) 사례연구는 양적연구를 토대로 할 수도 있지만(강지혜 2013: 18)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토대로 하는 질적사례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로 지칭되는 연구물은 모두 ‘질적사례연구’를 의미한다.

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전통적 판단기준인 신뢰도와 타당도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히 국내 통역연구에 있어 사례연구의 적용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미 번역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는 사례연구(Susam-Sarajeva 2009: 37)가 번역과는 또 다른 셋팅 속에서 진행되는 통역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연구물로서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지, 국내 통역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사례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등을 판단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 연구를 통해 사례연구의 개념 정의, 유형 분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연구물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한 후에, 국내 주요 통번역학회지인 『통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번역학 연구』, 그리고 『T&I Review』의 창간호부터 2017년 마지막 호에까지 게재된 통역 관련 논문 중 사례연구들을 모두 취합하여, 지금까지 국내 연구자들이 사례연구를 통해 접근했던 주제와 연구 질문, 그리고 연구 엄정성을 위해 사용한 전략 등을 분석한 후에, 향후 적용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구성했다.

2. 사례연구 방법론

2.1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

사례연구를 다른 질적 연구 예를 들어 현상학, 민족지학연구, 내러티브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점이다(Merriam 2009: 41-42). 즉 사례연구는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bounded system)에 관심을 갖고, 그 사례에 대해 적극 개입하여 통제하기 보다는 현 상황 그대로 그 사례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특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주변 맥락과의 상호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이를 상세하고 풍부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이 해당 사례를 잘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해보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미영 2009: 24; Merriam 2009: 51; Stake 1995: 16; Yin 2009: 2).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가 연구대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경계 내의 실체인지, 동사가 아닌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인지, 그리고 사례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유한한지 등을 보면 된다(고미영 2009: 21; Merriam 2009: 40; Nunan 2006: 75; Yin 2009: 17). 예를 들어 누난(Nunan 1992: 75)은 교육학에서의 사례연구 대상으로서 특정 학생, 학급, 교사, 프로그램, 학교, 학군, 공동체, 행사 등을 예로 들었으며, 인(Yin 2009: 17)은 사회학에서의 사례연구 대상으로서 특정 결정이나 조치, 특정 인물, 단체, 절차, 프로그램, 이웃공동체, 기관, 사건 등을 들었다. 또한 수삼 사라예바(Susam-Sarajeva 2009: 40)는 번역학에서의 사례연구대상으로서 특정 원천텍스트, 작가, 번역사, 번역기관, 번역물 의뢰자 또는 수취자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었다. 한 예로 사례 연구를 연구 대상에 따라 분류한 학자로 스텐하우스(Stenhouse 1983: Nunan 1992: 77에서 재인용)가 있다. 스텐하우스는 사례연구를 신민족지학연구(neo-ethnography), 평가목적 사례연구(evaluative case study), 다중장소 사례연구(multi-site case study), 교사사례연구(teacher research)로 분류했다. 이중 신민족지학연구는 연구자가 관찰자로서 직접 현장에 들어가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하는 것인데, 여기서 민족지학연구와 사례연구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민족지학연구가 하나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면 사례연구는 어떤 문화나 하위문화의 특정한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다(Nunan 1992: 75). 평가목적 사례연구는 정책이나 실천행동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다중장소 사례연구는 복수의 연구자들이 여러 장소에 가서 분석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교사사례연구는 교실에서의 실행연구 혹은 학교 사례연구라고도 칭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 겸 교사가 원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관찰과 자료 분석을 통해 자신의 학급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행연구와 비교하자면 교사사례연구는 상황 개선보다는 상황에 대한 이해에 더 초점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다(Nunan 1992: 17-20).

스테인크(Stake 1995: 3-4)는 연구목적에 따라 사례연구를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ies),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ies), 집합적 사례연구(collective case studies)로 구분했다. 이중 본질적 사례연구는 특정사례에

관심을 두고 이를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의미를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연구이며, 도구적 사례연구는 해결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현상 등이 있을 때 이를 이해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사례 분석을 도구로 사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집합적 사례연구는 복수의 대상으로부터 공통된 흐름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연구이다.

그밖에 보그단과 비클렌(Bogdan & Biklen 2007; Merriam 2009: 47에서 재인용)은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에 따라 역사적 사례연구(historical organizational case studies), 관찰사례연구(observational case studies), 생애사 연구(life histories)로 분류했다. 여기서 역사적 사례연구는 어떤 특정조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를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총체적 시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인데, 이 연구 방법이 연대기적 연구와 다른 점은 사례연구가 현존하는 사례를 다룬다는 점과, 단순한 문서, 유물 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례를 직접 관찰하고 관련 인물과의 면담 등을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관찰사례연구는 관찰을 주로 사용하되 면담, 기타 문서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생애사 연구는 특정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와의 직접 대화를 일정기간, 여러 번에 걸쳐 실시한 후 그 대화를 정리하여 서술하는 연구방법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연구의 분류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질적사례연구의 분류

학자	기준	분류	설명
Stenhouse (1983)	대상	신민족지학연구	단일사례대상으로 심층조사
		평가목적사례연구	정책이나 실천행동 평가
		다중장소사례연구	복수의 연구자가 복수의 장소연구
		교사사례연구	연구자가 자신의 학급 대상으로 연구
Stake (1995)	목적	본질적사례연구	특정사례에 관심을 두고 조사분석
		도구적사례연구	연구문제 해결방편으로 사례연구활용
		집합적사례연구	복수사례의 공통점에서 일반화모색
Bogdan (2007)	방법	역사적사례연구	특정조직의 변천사 통시적 추적조사
		관찰사례연구	주로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
		생애사연구	특정인물과의 여러 차례 대화내용 분석

2.2 연구 절차와 특징

사례연구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선형적이고 고착적인 절차를 밟아나가 기보다는 그 진행에 있어 순환적이고 유연한 특징을 갖는다(고미영 2009: 72). 예를 들어 사례연구는 처음 단일사례연구로 시작했다가 자료 수집과정에서 필요가 인지되어 복합사례연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며(Yin 2009: 62-64),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통합하는 혼합사례연구(mixed study)도 할 수 있고, 설문조사와 실험을 혼합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Nunan 1992: 75; Yin 2009: 62-63). 그러나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연구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미영 2009: 75).

연구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선 연구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연구자가 인지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 특정한 인과관계 등이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을텐데 특히 사례연구의 질문으로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짚어낼 수 있는 ‘what’으로 시작하는 연구 질문(예: 학생 통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인가?)보다는,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관련 상황들과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하는 ‘why’ 혹은 ‘how’로 귀결되는 내용이 적합하다(Yin 2009: 9).

사례연구가 민족지학연구나 근거이론 등 여타의 질적 연구와 다른 점은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 이론적 틀을 먼저 구성하고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론적 틀은 해당 연구 질문과 관련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 경험이나 배경에 맞추어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론적 틀은 향후 연구 진행방향,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 등에 있어 기본적인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Merriam 2009: 64-71; Yin 2009: 35-40). 통역 관련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통역 핵심이론(정혜연 2008 참고)외에도 연구자의 배경과 관심에 따라 언어학, 사회학, 역사학, 심리학, 인지과학, 교육학 등 인근 학문 분야로부터 관련 이론을 차용해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연구 대상이 될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사례는 위의 2.1장에 서술되어 있듯이 어떤 제한된 경계로 구획되어지는 하나의 체계로 존재하는 것(bounded system)을 대상으로 하며, 단일 사례(single case), 복합 사례(multiple case), 포함 사례(embedded case: 큰 규모의 단일 사례를 연구하면서 그 속의 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 등의 형태를 띌 수 있다(Baxter & Jack 2008: 549-51).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례의 범위를 규정해놓지 않으면 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연구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 혹은 장소로 범위를 규정하거나(예: 특정 통번역대학원 특정과목 수강생), 특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규정짓거나(예: 특정 금융기관의 인하우스 통역사), 특정 맥락으로 구획짓는 등 일정 범위로 한정짓는 것이 중요하다(Baxter & Jack 2008: 546).

사례연구가 특히 적합한 대상으로 여러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사례연구라는 것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통역 연구가 연구물로서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이유로 관련 변수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Chritoffels & de Groot 2005: 455), 특히 이런 점에서라도 통역의 다양한 연구 주제를 탐색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례연구가 적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 밖에도 일부 변수가 맥락 속에 너무 깊이 파묻혀있어 실험이나 설문조사로 분석해내기 어려운 경우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련 요소 간의 상호 작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다양한 주변 상황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하면서 해당 변수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도 비전형적이거나 특이하여 흔히 보기 어려운 경우 역시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Merriam 2009: 46).

다음은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단계로서 사례연구에서의 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수집할 수 있지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참여 관찰, 심층 면접(통상적으로 개방되거나 반구조화된 질문양식 사용), 문서 고찰, 연구자 자신의 생각을 담은 메모, 포커스 그룹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연구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사람이 제공하는 자료나 이야기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박현일 외 역 2014: 353). 또한 필요한 경우 양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Merriam 2009: 39), 이때의 데이터는 주로 추론 통계(inferential statistics)보다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게 된다(박현일 외 역 2014: 359).

연구자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일정 기간 현장에 체류하거나 참여하면서 연구 대상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조홍식 외 역 2015: 39). 처음에는 외부자로서의 관점(etic)으로 연구 대상을 바라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의 관점(emic)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참여자들

의 입장이나 관점을 보다 긴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미영 2009: 67-68). 그렇게 되면 연구 질문 역시 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연구자는 제3자로서의 관찰자인 경우가 많지만, 특히 단독 사례의 경우 연구자가 상황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개입 전과 개입 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Nunan 1992: 82). 물론 이때에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풍부한 설명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순차적인 단계라기보다는 거의 함께 일어나는 순환적 단계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료 수집을 하면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고 자료 분석 도중에도 자료 수집이 계속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원 자료(raw data)는 숙련된 연구자의 직관과 통찰, 그리고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여 코드화, 범주화, 추상화²⁾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관되고 총체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보고서 작성이다. 사실 사례연구의 보고서 작성에는 특별히 정해져있는 기준은 없지만(고미영 2009: 170; Yin 2009: 165), 통상적으로 두 가지 구조로 대별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상적이고 표준적인 구조로서 서론, 문제 제기, 연구방법 설명, 결과 보고, 논의와 결론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구조는 틀에 박힌 논문서술 양식이 아닌 이야기 전개방식으로서 앞부분에서 쟁점과 연구목적, 방법론을 제시한 후에 확장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Stake 1995: 127-28). 쟁점이 발전되어나가면서 독자는 연구자와 여정을 함께 하는 기분으로 연구논문을 읽어나가게 될 것이며, 연구자의 주장을 포함한 마무리 부분에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체의 논문 서술방식은 질적 연구에서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서 흔한 서술 방식은 아니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독자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자연적 일반화(natural generalization)가 주요 목적 중 하나인(Stake 1995: 85-88) 질적

2) 여기서 ‘코드화’는 주제별, 시간대별 등 일정한 체계를 만들어 그 색인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범주화’는 분류한 의미단위들을 개념적으로 해석하면서 큰 범주로 통합하는 일, ‘추상화’는 이로부터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어떤 일관된 패턴이 있으며 이러한 패턴이 잠정적 가설과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등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료들을 해석하고 통찰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일컫는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고미영 2009: 149-63; Stake 1995: 71-90; Yin 2009 127-63 참고)

연구에서 시도해볼만한 논문서술방식이라 생각된다(고미영 2009: 179-85)³⁾.

2.3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전략

이번 절에서는 먼저 사례연구의 엄정성과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신뢰도와 타당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각각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연구의 가치판단을 위한 척도로서 경험적 사회과학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 신뢰도(reliability)가 있다(Yin 2009: 40-45; Merriam 2009: 209-228). 여기서 구성타당도라 함은 연구대상이 되는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연구 절차가 잘 구성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내적타당도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설명이 다소 다른데, 메리엄(2009: 213)은 내적타당도를 사례연구에서 도출해낸 결론들이 얼마나 현실을 정확하게 잘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데 반해, 인(2009: 41)은 여러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이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이 정확하고 적절한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외적타당도는 사례연구에서 도출되는 결론들이 기타의 다른 사례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한 사례연구의 결론들이 다른 경우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이는 용이하게 일반화 내지는 이론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뢰도는 잘 알려져 있듯이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Yin 2009: 45).

다만 질적사례연구에서는 ‘외적타당도’보다는 다른 사례로 전이되어 적용이 가능할지를 판단한다는 의미의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개념이 더 합당한 판단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으며(Merriam 2009: 225), 또한 같은 사례가 반복되기 어려운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신뢰도를 평가할 때 자료들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일관된 논리로 이어지는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미영 2009: 168-71).

이러한 제반 평가기준들을 충족시키고 연구물로서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3)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 중 Nam(2012)이 이러한 이야기전개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전략으로서 인(2009: 41)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구성 타당도를 위해 자료 수집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자료들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내적타당도를 위해 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잠정적 가설과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pattern matching), 보고서의 내용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서로 상충되는 분석결과가 있으면 이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논리 흐름도(logic model)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례 연구보고서 초안을 자료 제공자들에게 검토해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외적타당도의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복합사례연구인 경우 같은 논리가 반복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replication logic)는 등의 요건이 제시되었다. 또한 인(2009: 45)은 신뢰도를 위해 사례연구 프로토콜을 만들어두어야 하며, 연구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메리엄(2009: 229)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자료 제공자로 하여금 연구보고서 초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지 체크(member check), 자료 수집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향이나 가치관 등이 해당연구에 어떻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 절차나 중간 중간 잠정적으로 도출되는 결론들, 원자료와의 합치성 등에 대해 동료 연구자들의 검토를 받아볼 것, 방법, 절차, 결론에 도달하는 지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해둘 것(audit trail), 연구 맥락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thick description), 수집 자료의 폭을 최대한 넓게 함으로서 연구 결과의 적용가능범위를 최대한 넓힐 것(maximum varia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연구를 포함한 여러 질적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 삼각측정법의 종류로는 우선, ‘데이터의 삼각측정법(data source triangulation)’이 있다. 이는 다른 시간대에서,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그룹에 대해서 같은 사례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통역대학원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통역대학원마다 동일하게 관찰된다면 이러한 자료는 신뢰성이 높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조사자 삼각측정법(investigator triangulation)’이

있다. 이는 동일한 사례에 대해 연구자들, 관찰자들, 패널, 비평가 등 여러 부류의 조사자가 작성한 자료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론 삼각측정법(theory triangulation)’은 서로 다른 이론적 견해 혹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사례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로부터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며, 마지막 ‘방법론적 삼각측정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은 관찰, 인터뷰, 문서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 접합점을 찾아가는 것이다(Stake 1995: 112-114).

위에서 설명된 사례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자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례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

단계	전략
연구준비	연구 프로토콜 미리 마련해두고 시작
	이론적 틀 정립
	삼각측정(triangulation) 계획
	- 데이터 삼각측정 - 조사자 삼각측정 - 이론 삼각측정 - 방법론적 삼각측정
자료수집	다양한 종류의 자료 수집
	자료 간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함
	자료 수집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것
	수집 자료의 폭을 넓혀 연구결과의 적용가능 범위를 극대화
자료분석	삼각 측정(triangulation) 실시
	범주화된 의미단위의 패턴이 잠정적 가설에 상응하는지 체크
	내용이 상충되는 자료도 함께 제공할 것
	논리의 흐름도를 만들면서 분석할 것
	(복합사례의 경우) 같은 논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
	연구자 자신의 이론적 배경, 성향 등의 투영 가능성 검토
	연구절차, 임시적 분석 결과 등을 동료연구자와 공유
보고서 초안을 자료제공자에게 검토하도록 할 것	
보고서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절차, 결론에 도달하는 지점 등 상세히 서술
	다른 사례에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연구맥락을 상세히 서술
	서로 상충되는 분석 결과가 있으면 이를 함께 제시

다음 장에서는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통역 관련 사례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확대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국내 통역관련 사례연구 현황

3.1 국내 통역관련 사례연구 취합

국내 통역관련 사례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사례연구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국내 주요 통번역학술지에 게재된 통역관련 사례연구를 모두 취합했다.

분석 대상 통번역학술지로 국내 통역관련 논문들이 게재되는 주요 학술지인 『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통번역학연구』, 그리고 『T&I Review』(원종화 2015: 36)를 선정하였고, 이들 학술지의 창간호에서부터 2017년 마지막 호까지에 게재된 모든 통역 관련 논문 중 제목에 ‘사례’라는 용어가 포함된 논문들을 모두 취합한 후에, 그중 ‘사례’라는 어휘를 주 분석대상을 일컫는 말로 사용했을 뿐 사례연구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논문(예를 들어 부제목에 ‘~사례를 중심으로’와 같은 표현이 포함된 논문)은 제외했다. 위의 학술지 4종의 창간호에서부터 2017년 마지막호까지 실린 전체 통역 관련 논문 308편 중 사례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은 『번역학연구』 8편, 『통역과 번역』 4편, 『통번역학연구』 5편, 『T&I Review』 2편으로 총 19편이었으며,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국내 통역관련 사례연구 논문 모음 (1997-2017)

번호	년도	저자	제목	학술지
(1)	2004	편혜원	교사 프로파일에 따른 AB통역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통역과 번역
(2)	2007	곽중철	A case study of misinterpreting in Korea-US press conferences	번역학 연구
(3)	2008	이소희	Case study on the use of segmentation strategy in English to Korean ST	통역과 번역

(4)	2010	곽중철	2009년 한국 제1기 의료통역사 교육 사례연구	번역학 연구
(5)	2010	이지은	A case study of an untrained interpreter's court interpreting.	번역학 연구
(6)	2012	이지은 외	효과적인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교수법: 영한순차통역 노트테이킹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7)	2012	남원준	Interpreting for Korean overseas adoptees: A case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 interpreters working for adoptees and its implications	번역학 연구
(8)	2012	이혜승	학부통번역 교육현황 및 교육방법연구: 토론과 논쟁중심의 강좌 운영사례보고	통번역학 연구
(9)	2012	정철자	통역평가 비교가능성: 교육상황에서의 사례연구	통번역학 연구
(10)	2012	이지은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1)	2013	정철자	학습자 중심의 통역교육 사례연구	통번역학 연구
(12)	2014	이지은 외	통번역학 석사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졸업생 설문조사: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사례연구	T&I Review
(13)	2014	이소희	한영동시통역에서 분절 및 전환전략의 활용: 명사구의 동사화 사례분석을 통한 고찰	통역과 번역
(14)	2014	이지은 외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통해 본 지역사회통역 사례연구	번역학 연구
(15)	2015	이지은 외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통역교수법 사례연구	번역학 연구
(16)	2015	정철자	의료통역 교재내용 구성을 위한 의료담화 사례연구	번역학 연구
(17)	2015	이지은 외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제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 사례연구	번역학 연구
(18)	2015	곽중철 외	통번역대학원의 영한 동시통역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교과분석과 학습자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9)	2015	이지은 외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조사 사례연구	T&I Review

3.2 기존 사례연구 동향 분석

다음 단계로, 취합한 위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질문, 대상사례, 연구유형, 그리고 연구 엄정성 확보 전략 등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해보았다.

3.2.1 연구 질문과 대상 사례

먼저 취합한 19편의 논문들을 모두 통독한 후에, 특히 서론 부분에서 연구자 자신(들)이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을 확인하고, 이를 ‘what’, ‘how’, 또는 ‘why’로 시작하는 질문의 형태로 바꾸어 연도별로 정리해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 통역 연구자들이 그동안 사례연구를 통해 주로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짚어보았다. 다음 <표 4>는 사례연구 19편에 제시된 연구 질문과 대상사례들이다.

(표 4) 분석 논문들의 대상사례와 연구 질문 (*: bounded: **: unbounded)

번호	연구 질문	대상 사례	질문 특성
(1)	언어배합이 다른 통역교사 간 동시통역 평가기준 차이는 무엇인가?	특정대학원 한불과 강사 2명의 AB통역 평가기준*	what
(2)	외교통역의 실제사례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나?	특정일자 한·미 대통령/외상 기자회견 통역*	what
(3)	영한동시통역에서 분절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정일자에 진행된 포럼 동시통역 일부*	what
(4)	의료통역사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제1기 의료통역사 교육과정*	how
(5)	정식통번역 훈련을 받지 않은 법정통역사의 통역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정재판과정에서의 법정통역 1시간 분*	what
(6)	통역사들은 순차통역 시 노트태킹을 어떻게 하는가?	특정대학원 학생 2명과 현직통역사 2명*	how
(7)	입양통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학부생 입양통역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	how
(8)	학부통번역교육에서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실시한 강좌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토론과 논쟁을 중심으로 3회 진행한 수업**	how
(9)	평가자간 평가기준의 편차를 어떻게 극복했나?	특정대학원 2학기 영한순차담당 교수자 5명*	how
(10)	국내난민통역에서 난민인정절차 통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두 개 재판부에서 있었던 10시간가량의 난민재판 통역녹음자료*	how
(11)	순차통역수업을 학습자중심 수업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특정대학원 특정학기 학습자중심 영한순차통역수업*	how

(12)	통번역 석사과정 커리큘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특정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how
(13)	영한과 한영 동시통역 시 분절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특정미디어포럼의 동시통역 120초 분량*	how
(14)	국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2014년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258명의 통번역인력*	how
(15)	통역대학원 순차통역수업에 블렌디드 러닝을 도입한 후 수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특정대학원 특정학기 블렌디드 러닝 적용 수업*	how
(16)	의료통역 교재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특정종합병원 부속 건강검진센터 의료진과 환자 대화내용170분 분량*	how
(17)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 대상 교육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자 대상 교육과정*	how
(18)	영한 동시통역 수업 모형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특정대학원의 영한동시통역 수업모형*	how
(19)	실무경찰관이 경찰통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무엇인가?	경찰통역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what

우선 연구 질문으로부터 판단해보았을 때, 연구자들이 가장 자주 사례연구를 적용했던 통역 셋팅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통역(외교통역, 의료통역, 법정통역, 입양통역, 난민통역, 결혼이민자통역, 경찰통역)이었다. 연구자들은 사례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통역에 있어서 발견되는 통역오류 문제(이지은 2012b; Kwak 2007), 커뮤니티통역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곽중철 2010; 이지은 외 2015; 정철자 2015), 커뮤니티 통역 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지은 2012b; 이지은 외 2014; 이지은 외 2015; Nam 2012)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아무래도 제한된 셋팅 속에서 진행되는 회의 통역에 비해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진행되는 커뮤니티 통역(정혜연 2008: 217-239)이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제기되는 연구 질문은 통역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였다. 연구자들은 개인별 통역 평가기준의 편차를 확인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기도 했고(정철자 2012; 편혜원 2004), 새로운 통역 교수법의 효과를 판단하고자 했으며(곽중철 외 2015; 이지은 외 2015; 이해승 2012; 정철자 2013), 또한 통

역 교육 커리큘럼 개선방안을 사례연구로 풀어보고자 했다(이지은 외 2014a). 교육학에서 다양한 실무적 문제점을 다루거나 학문적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연구 방법 중 하나가 사례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박수연 1997: 211) 통역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례연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밖에 통역 과정에서의 정보 처리(분절화, 노트테이킹 전략)를 확인하고자 하는 논문이 있었다(이소희 2014; Lee 2008). 다만 통역사의 정보처리를 사례연구로 풀어보고자 하는 경우, 맥락적 상황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사례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맥락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실험이외의 다양한 절차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더욱 적합한 방향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사례의 특성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논문들은 어떤 경계 내에 있는 특정 대상을 다룸으로서 연구의 초점을 일정 범위내로 국한했다(위의 <표 4>에서 *로 표시함).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특정 통역에 있어서의 오류, 특정 수업방법의 적용과 효과, 특정대학원 커리큘럼, 특정 셋팅 속에서의 통역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사례연구라는 것이 특정한 구분이 드러나며, 구체적인 체계(bounded system)를 가진 하나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를 대상으로, 일정한 관점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박수연 1997: 200), 이와 같이 경계가 있는 특정 분석단위를 대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며, 이로부터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연구 질문의 특성과 관련해, 사례연구의 연구 질문으로 적합한 것은 2장에서 설명했듯이 특정사례를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how’나 ‘why’로 시작하는 것들이다. 본 연구의 분석 논문들 역시 초반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연구 질문(예: 외교통역에 있어서 발견되는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들이 보였으나, (4)번 논문 이후부터 거의 ‘how’ 질문으로 이행됨으로서 특정한 사실 확인에 관심이 있어 설문조사, 문서 조사 등이 적합한 ‘what’ 질문보다는 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why’로 시작하는 연구 질문은 전무해 앞으로 사례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2.2 사례연구 유형

2.1의 <표 1>에 정리된 사례연구의 분류 유형에 따라 분석대상 사례연구 논문 들을 다음 <표 5>와 같이 분류해보았다.

<표 5> 분석대상 사례연구의 유형분류

번호	방법	목적	대상
(1)	-	도구적	평가목적
(2)	-	도구적	평가목적
(3)	-	도구적	-
(4)	관찰사례연구	본질적	평가목적
(5)	-	도구적	평가목적
(6)	-	도구적	-
(7)	관찰사례연구	도구적	신민족지학연구
(8)	관찰사례연구	본질적	평가목적
(9)	-	도구적	평가목적
(10)	-	도구적	평가목적
(11)	관찰사례연구	도구적	교사사례연구
(12)	-	본질적	평가목적
(13)	-	도구적	-
(14)	-	본질적	평가목적
(15)	관찰사례연구	도구적	교사사례연구
(16)	-	도구적	-
(17)	-	본질적	평가목적
(18)	-	도구적	평가목적
(19)	-	도구적	-

우선 보그단과 비클렌(2007)이 제시한 연구방법에 따른 역사적사례연구, 관찰사례연구, 생애사 연구 중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시도된 유일한 방법은 관찰 사례연구였다. 연구자들은 입양통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역수업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의 효과는 무엇인지, 커뮤니티 통역사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는 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면담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수업을 관찰하는 등 관찰자로서 연구대상을 분석하고 살폈다. 다만 관찰사례연구가 원래 의도하는 바대로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머무르면서 참가자들의 대화를 경청하고 이를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등(고미영 2009: 205-10)의 적극적인 관찰에 의존했다기보다는 면담, 관련자료 분석 등 간접적인 관찰인 경우가 더 많았

다. 향후 사례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찰 중심 연구와 함께, 역사적 사례연구와 생애사 연구 모두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만한 연구 방법이라 생각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한 스테이크(1995)의 도구적, 본질적, 집합적 연구 분류 항목 중에는 주로 도구적 연구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들은 주로 통역과 관련한 특정 주제나 연구 질문의 대답을 모색하기 위해 사례를 하나의 예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례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상세히 서술하는 본질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여러 개의 연구 현장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단일 현장 내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각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한 후, 전체 결과를 통합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집합적 사례연구는 전무했다.

마지막으로 스톤하우스(1983, Nunan 2006: 77에서 재인용)의 연구대상에 따른 사례연구 분류, 즉 신민족지학연구, 평가목적사례연구, 다중장소사례연구, 교사사례연구 중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가장 자주 보여지는 것은 평가목적 사례연구였다(논문 19편 중 11편). 연구자들은 교사들의 평가가 잘 진행되는지(편혜원 2004; 정철자 2012), 외교통역, 법정통역, 결혼이민자 통번역 등 주로 전문적 훈련을 받지않은 커뮤니티통역사에 의한 통역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는지(이지은 외 2014b; Kwak 2007; Lee 2010), 국내 의료통역사 교육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개선방안들이 있는지(곽중철 2010),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시도한 새로운 통역 교육방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곽중철 외 2015; 이혜승 2012), 통번역대학원 현 커리큘럼의 장점과 개선방안(이지은 외 2014a) 등 사례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밖에 교사로서 자신의 학급에 시행했던 블렌디드러닝 교수법이나 학습자중심의 교수법 효과를 가늠했던 교사사례연구 논문이 있었다(이지은 외 2015a; 정철자 2013).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그것이 본질적 연구이든 도구적 연구이든 상관없이 대부분 기존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사사례연구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학급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개입을 하고 그 효과를 가늠해보는 경우는 있었으나, 어떠한 개입도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현 상황 그대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는 없었다.

3.2.3 연구 엄정성 확보 전략

이번 절에서는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자들이 연구 엄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방법론적 삼각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자료조사, 면접, 설문지 조사 등 복수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자료를 취합했다. 그 밖에도 연구 초기에 연구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관련 이론적 틀이라든가 유사한 선행연구의 예들을 제시함으로써 자료 취합과 분석에 있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연구가 앞으로 연구물로서의 엄정성을 더욱 인정받고 유의미한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론적 삼각측정법 이외에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더욱 다양한 전략들(<표 2> 참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연구 엄정성 확보에 대한 제언은 5. 종합논의에 포함시켰다.

4. 사례연구 확대방안 제언

4.1 통역 종류와 구성요소 기준 확대 방안

본 절에서는 통역 관련하여 앞으로 사례연구를 어떤 분야로 확대해나갈 수 있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역 종류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통역 분야를 분류한 후에 분석대상 논문들이 주로 어느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확대 적용할 만한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통역의 구성요소로는 질(Gile 1995: 24)이 제시한 원천텍스트(ST)화자, ST, 통역사, 목표텍스트(TT), TT청자, 통역의뢰자를 포함시켰고, 분석대상 논문에서 확인된 분야를 감안하여 이에 통역수행절차와 통역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며, 통역 상황은 정혜연(2008: 105-106)이 제시한 바에 따라 회의통역, 커뮤니티통역, 방송통역, 회담통역, 관광통역 등 다섯 항목으로 다음 <표 6>과 같이 구분했다.

〈표 6〉 통역 구성요소와 종류에 의거한 연구주제 분야 분류

	회의통역	커뮤니티통역	회담통역	방송통역	관광통역
ST	-	-	-	-	--
ST화자	-	-	-	-	-
통역사	(3), (6), (13)	-	-	-	-
TT	-	(5), (10)	(2)	-	-
TT청자	-	-	-	-	-
고객	-	(19)	-	-	-
절차	-	(7), (14)	-	-	-
교육	(1), (8), (9) (11), (12) (15), (18)	(4), (16), (17)	-	-	-

〈표 6〉을 보면 그동안 사례연구로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회의 통역 교육(논문 7편)과 커뮤니티 통역 교육(논문 3편)이었다. 그 다음으로 통역사의 정보처리 자체를 분석한 논문이 3편(동시통역에서의 분절화, 노트테이킹 기법)이었으며, 통역 발화문(TT)을 분석한 것이 커뮤니티 통역에서 2편, 회담통역으로 분류한 외교통역에서 1편 있었다. 나머지 고객 항목에서는 경찰 통역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통역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논문 1편, 절차 항목에서는 입양통역 절차 관련 논문 1편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절차를 조사한 논문이 1편 있었다. 그러나 특히 방송통역이라든가 관광통역에 관해서는 어떤 연구도 되지 않았고, 회의통역이나 커뮤니티 통역에 있어서도 ST, ST화자, TT청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해 앞으로 사례연구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통역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주제 이외에도, 특정 통역학생(들), 통역 교수자(들), 학급, 통역교육기관, 지역별 통역교육현황(통시적 연구 포함) 등이 연구대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대상 논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연구자가 자신의 학급이 아닌 제3의 프로그램에 관찰자로서 참여하여 교육 현장의 여러 내용과 절차들을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관찰하여 서술하는 연구 역시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3자의 존재가 교육과정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과 함께, 해당 기관의 교육자, 담당자, 교육 대상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미영 2009: 97-101). 통역사에 관련한 연구로서는 인하우스 통역사, 프리랜스 통역사, 방송 통역사, 법정 통역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통역에 종사하는 통역사(들)에 초점을 맞추어 통역사라는 직업 혹은 통역 수행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심리적, 언어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을 조사하고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표 6>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통번역 에이전시, 통번역사 고용기관 등 고객에 대한 연구, 통역사의 업무 수주와 관련한 절차, 업무수행절차 등 절차에 관한 연구, ST화자, TT청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사례연구로 풀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2 연구 질문

<표 4>에 따르면 분석 대상 논문들의 연구 질문은 거의 ‘how’로 대변되는 것들이었다. 향후 확대 방안으로서 ‘why’로 대변되는 연구 질문들, 예컨대 어떤 특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 공동체 안에서의 역학 관계,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이 특정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인과관계를 사례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4.3 연구 분류 유형

3.2.2장에 설명되어있는 대로 분석대상 논문들의 분류 유형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연구방법에 따른 보그단과 비클렌(2007)의 분류 항목인 역사적 사례연구, 관찰사례연구, 생애사 연구 중에서는 관찰사례연구만 확인되었고, 목적에 따른 분류 유형인(Stake 1995) 본질적 사례연구, 도구적 사례연구, 집합적 사례연구 중 논문 대부분은 도구적 사례연구로 분류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에 따라 스텐하우스(1983: Nunan 2006에서 재인용)가 제안한 분류 항목들, 신민족지학 연구, 평가목적 사례연구, 다중장소 사례연구, 교사사례연구 중에서는 평가목적 사례연구 11건, 신민족지학연구 1건, 교사사례연구 2건이 있었다. 따라서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 이외에도 다른 여러 분류 항목들에 속하는 사례연구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 목적에서는 어떤 특정 대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과거에

존재했던 상황들을 현재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역사적 사례연구, 그리고 특정 대상(통역사, 통역학생, 통역교사 등)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통역 관련 주제들을 풀어어나가는 생애사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목적에 따른 분류 항목 중에서도 통역과 관련한 여러 주제들을 사례로 삼아 그 자체의 본질적 속성이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등에 관심을 갖고 통찰하는 본질적 사례연구, 그리고 단일 주제에 대해 복수의 사례를 한꺼번에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집합적 사례연구(예: 2개 이상의 통역교육기관의 종합적 분석 및 비교 고찰) 등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스텐하우스(1983)가 제시했던 신민족지학연구나 다중장소사례연구 역시 향후 사례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민족지학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본질적 사례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사례에 관한 풍부하고 상세한 조사를 통해 그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민족지학연구에서와 같은 총체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적인 측면이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통찰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복수의 연구자들이 복수의 장소로 나아가 조사활동을 하는 다중 사례연구 역시 가능한 연구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하우스 통역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몇 개를 선정하여 복수의 연구자들이 각각 할당받은 장소로 나아가 조사활동을 수행하되 모든 조사 활동이 일정한 논리적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종합 논의

주지하다시피 실증주의의 대전제는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리원칙이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엄격한 실험 셋팅과 변수 통제가 가해진다면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는 이러한 규칙 하에 돌아가게 된다는 전제이다(이지만 2004).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개인이 혹은 개별적인 주체가 가지는 특이하거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나 행동은 전체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 ‘특이성’이라는 이름 하에 배제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심층적 의식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싼 맥락에 영향을 받는 언어활동 특히 그중에서도 통역활동은 이러한 공통분모 적 규칙성에 묶어놓기에는 너무나 가변적이고 맥락 의존적이다. 같은 의미라도 전하는 연사에 따라, 듣는 청중에 따라, 처해진 맥락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도, 비언어적 요소도 다르게 사용되고, 다르게 전달되고,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 통역이라는 언어 수행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적 특정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맥락 하에서 어떠한 주변 여건들이 사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보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유사한 맥락에 처해있는 독자들이 자신의 맥락에 이러한 해석들을 적용해보고 결론을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돕는 사례연구는 무엇보다 통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사례연구를 적용하는데 있어 통역 관련하여 어떤 주제들이 가능할지, 사례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이며, 특히 연구물로서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지 등을 모색해보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주요 통번역 학술지에 실린 모든 통역 관련 사례연구들을 취합한 후에, 이들 논문들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사례연구를 통해 모색하고자 했던 연구 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연구 질문들이 제기되었으며, 어떤 유형의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는지, 연구엄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았고(3.2절 참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 통역관련 제반 주제들에 사례연구를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4장 참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사례연구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와 사례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통역 관련한 사례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특별히 유의할 점들을 제안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사례연구를 하는데 있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연구자가 사례연구의 개념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본질에 맞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사례연구라는 것이 다른 연구방법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방법도 절차도 유연하고 가변적이며, 광범위한 분야들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정확하고 엄정성이 떨어지는 연구 방법으로 폄하되기 쉽기 때문이다(고미영 2009: 18-20). 사례 연구는 문자 그대로 특정

사례에 관심을 갖고 그 사례에 관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주제를 탐색하는데 있어 단순히 사례를 하나의 예로 사용한 연구라면 이는 사례연구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사례연구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그 사례가 어떤 경계로 구획되어져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역사의 심리상태’와 같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한계가 없는 대상은 연구 사례로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분석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연구 자체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미완성으로 끝나버리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례연구의 연구 틀로 사용할 수 있는 인근 분야의 여러 이론들이나 통역학의 핵심 이론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례연구가 이론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함으로서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틀은 사례 연구의 단순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사례 연구의 결과로부터 기존 이론에 수정을 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도 있고, 나아가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통역학의 발전에 있어서 사례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세 번째로,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맥락에 대한 서술이 풍부하게 되어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풍부하고 상세하면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술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고미영 2009: 179-88; Stake 2009: 243-45; Yin 2009: 188-89).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논문 중에서도 맥락 등에 관한 서술이 충분히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 독자들이 실제 맥락(물리적 셋팅, 사회적 환경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로부터 통찰력을 얻어 나름의 해석을 내리고 타 사례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의 맥락적 상황, 제반절차,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 과정 등이 풍부하고 상세하게 서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질적 연구로서의 사례연구의 엄정성을 위한 제반 전략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사용된 주요 방법들로 설문조사, 관련자료 조사, 면담, 그리고 아주 적게는 실험 등이 있었다. 그 외에

도 참여 관찰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양적자료도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에 설명했듯이 연구준비단계에서는 연구프로토콜 마련과 이론적 틀 정립, 방법론적 삼각측정 계획 이외에도 데이터 삼각측정, 조사자 삼각측정, 이론 삼각측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된 방대한 자료 간에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가 되고, 이러한 논리의 흐름이 명확하게 전달됨으로서 독자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적 성향을 살펴 해석이나 서술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연구절차 등을 동료 연구자와 공유한다든지, 보고서 초안을 자료 제공자에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서로 상충되는 분석결과가 있을 때 이를 함께 제시하는 등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서술되어 독자들이 연구물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간호부터 2017년 마지막 호까지의 해당 학술지들에 실린 전체 통역 논문 308편 중 사례연구는 19편에 불과했고, 또한 저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사례 연구물의 수나 연구자의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편이었다. 그 이유를 꼽자면 무엇보다도 통역 연구자들 사이에 사례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질적사례연구의 장점과 가능성을 이해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통역 관련 주제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등 통역 연구에서 사례연구의 적용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이러한 연구 확대를 위한 한 작은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3) 「경험적 연구로서의 번역사례연구: 방법론적 고찰」, 『번역학연구』 14(2): 7-38.
- 고미영 (2009)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 김순영 (2006) 「학부 번역교육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소고: 이론기반 텍스트 분석 교과 도입」,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27-43.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박수연 (1997) 「교육학에 있어서 사례연구의 중요성」, 『교육과학연구』 26: 197-215.
- 박현일, 이주은, 홍설영, 윤킴 (2014) 『번역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인. (Gabriela Saldanha & Sharon O'Brien, 2013, *Research Methodologies in Translation Studies*).
- 서유경 (2014) 「순차통역과 노트테이킹의 상관관계 실증적 연구: 노한 순차통역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3): 341-359.
- 원종화 (2015) 「국내통역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연구 패러다임 변화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1): 35-64.
- 이지만 (2004) 「탈실증주의 사회과학 방법론의 고찰」, 『연세경영연구』 41(1): 285-309.
- 이지은, 장원경 (2016) 「사법통역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0(3): 251-80.
- 정혜연 (2008) 『통역학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 조홍식, 권지성, 김진숙, 정선옥, 윤킴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John W. Creswell and Cheryl N. Poth,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ird edition).
- Baxter, Pamela and Jack, Susan (2008)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Study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Novice Researchers', *The Qualitative Report* 13(4): 544-59.
- Bogdan, Robert and Biklen, Sari Knopp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Boston: Pearson.
- Christoffels, Ingrid L. and de Groot, Annette, M. B. (2005) 'Simultaneous Interpreting: A Cognitive Perspective' in Judith F. Kroll and Annette M. B. de Groot (eds.). *Handbook of Bilingualism*, NY: Oxford University Press, 454-79.
-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lesne, Corrine (1999)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 fifth edition, NY: Longman.
- McMillan, James H. and Wergin, Jon F. (2002)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Educational Research*, second edition, NJ: Merrill Prentice Hall.
- Merriam, Sharan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CA: Jossey-Bass.
- Nunan, David (1992) *Research Methods in Language Learning*,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ke, Robert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CA: Sage.
- Stenhouse, Lawrence (1983) 'Case Study in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in L. Bartlett, S. Kemmis, and G. Gillard (eds.) *Case Study: An Overview*. Geelong, Australia: Deakin University Press.
- Susam-Sarajeva, Sebnem (2001) 'Is One Case Always Enough?',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9(3): 167-76.
- Susam-Sarajeva, Sebnem (2009) 'The Case Study Research Method in Translation Studie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ion Trainer* 3(1): 37-56.
- Yin, Robert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fourth edition, CA: Sage.

<분석 대상 텍스트>

- 곽중철 (2010) 「2009년 한국 제1기 의료통역사교육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1(1): 7-43.
- 곽중철, 권상미 (2015) 「통번역대학원의 영-한동시통역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교과분석과 학습자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4): 1-21.
- 이소희 (2014) 「한영동시통역에서 분절 및 전환전략의 활용: 명사구의 동사화 사례분석을 통한 고찰」, 『통역과 번역』 16(2): 111-30.
- 이지은 (2012a)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조사 사례연구」, 『T&I Review』 4: 93-120.
- 이지은 (2012b)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1): 213-36.

- 이지은, 유효미, 전양주, 정희정 (2014a) 「통번역학 석사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졸업생 설문조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사례연구」, 『T&I Review』 4: 51-71.
- 이지은, 장애리, 최문선, 허지운 (2014b)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통해 본 지역사회통역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5(3): 177-210.
- 이지은, 장애리, 최문선, 허지운 (2015a)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통역교수법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1): 117-44.
- 이지은, 장애리, 허지운 (2015b)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제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3): 197-228.
- 이지은, 최문선 (2012) 「효과적인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교수법: 영한순차통역 노트테이킹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4): 169-95.
- 이혜승 (2012) 「학부통번역 교육현황 및 교육방법연구: 토론과 논쟁 중심의 강좌 운영사례보고」, 『통번역학연구』 16(2): 179-98.
- 정철자 (2012) 「통역평가 비교가능성: 교육상황에서의 사례연구」, 『통번역학연구』 16(2): 219-39.
- 정철자 (2013) 「학습자중심의 통역교육 사례연구」, 『통번역학연구』 17(4): 157-77.
- 정철자 (2015) 「의료통역 교재내용 구성을 위한 의료담화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2): 271-92.
- 편혜원 (2004) 「교사 프로파일에 따른 AB통역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통역과 번역』 6(2): 207-24.
- Kwak, Joong Chol (2007) 'A Case Study of Misinterpreting in Korea-US Press Conferenc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8(2): 217-40.
- Lee, Jieun (2010) 'A Case Study of an Untrained Interpreter's Court Interpreting',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1(1): 339-60.
- Lee, Soh Hee (2008) 'Case Study on the Use of Segmentation Strategy in English to Korean SI',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0(1): 109-26.
- Nam, Won Jun (2012) 'Interpreting for Korean Overseas Adoptees: A Case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 Interpreters Working for Adoptees and Its Implications' 13(3): 35-64.

[Abstract]

Suggestions for Expanding the Use of the Case Study Method in the Field of Interpreting Studies in Korea

Won, Jong-Wha
(Chung-Ang University)

A case study refers to a research method which involves detailed, in-depth investigation of a specific situation or personal experience. What matters most in a case study is that the case should be understood and analyzed in the context in which it exists. The case study can be a suitable research method for delving into various subjects related to interpreting. This is because interpreting is a lingual performance that takes place under specific contextual conditions, and is affected by cultural,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Unlike experiments which emphasize control of many variables, a case study allows holistic analysis of all the factors involved in the cas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researchers in Korea have approached subjects related to interpreting using the case study method, and to suggest ways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case studies in this field. To this end, this author has collected all the case studies dealing with interpreting from Korea's major T&I academic journals published from 1997 to 2017, and analyzed 19 collected papers against such criteria as the research questions, types of case study and the strategies the authors employed in order to ensure academic rigor of the paper. After that, the author makes suggestions about how the case study method might be put to wider and better use in the study of interpreting.

▶ Key Words: academic rigor, case study, interpreting, research question, types of case study,

▶ 주제어: 연구의 엄정성, 사례연구, 통역, 연구질문, 사례연구유형

원종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교수

wonjh@cau.ac.kr

관심분야: 인지과학, 통역정보처리, 언어와 문화, 통역교육

논문투고일: 2018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18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5일